

30년명문 송원여상 배구팀 해체

여중팀도 함께... 학교측 "선수 관리 힘들어"

"광주 모 학교서 팀 창단 선수 인수 추진"

여고 배구의 전통명가 송원여상과 송원여중 배구팀이 해체되고 광주 모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배구팀 선수들을 인수해 창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송원여상측은 "배구팀의 선수확보가 어렵고, 학생들 관리가 힘들어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배구협회에 이남 팀 해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광수 송원여상 교장은 "최근 들어 선수 스카우트가 힘들고 학생들 관리가 힘들어 도저히 팀을 운영할 수 없어 해체하게 됐다"

며 "광주 모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송원여상과 송원여중 선수들을 그대로 인수해 팀을 창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송원여상 배구팀 해체에 대해 "29일 갑작스럽게 송원여상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배구협회 관계자는 "송원여상과 여중 선수들이 팀 해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주 모 고등학

교와 중학교에 팀을 창단해 그대로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1978년 창단돼 29년 동안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여고 배구 명가로 군림해온 송원여상과 송원여중 배구팀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송원여상은 지난해 단 7명의 선수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5년만에 정상에 오르는 등 전국대회 3관왕에 등극,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나 이달 초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경기 2회전에서 탈락하면서 재단에서 팀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만 건드렸어

29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리버풀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아래)가 태클 수비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대, 대학축구선수권 정상에

송실대에 연장 접전 2-0 승리

호남대가 연장 120분 혈투 끝에 송실대를 꺾고 2007 협맹코리아 제62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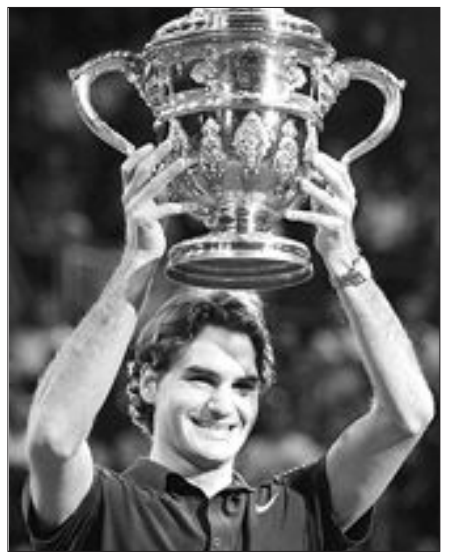
호남대는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대회 결승전에서 송실대를 상대로 연장 후반 9분 장원석의 결승골과 5분 뒤 이성민의 추가골이 잇따라 터져 2-0 승리를 거뒀다.

2002년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호남대는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2005년과 작년 우승팀 송실대는 대회 3연패를 놓쳤다.

전반 초반부터 송실대 골문을 압박한 호남대는 득점없이 전반을 마쳤고, 후반 43분 송실대 박정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고 연장 승부를 맞았다.

호남대는 연장 전반에도 골문을 열지 못해 승부차기로 갈 기운이 짙어졌지만 연장 후반 9분 장원석이 김상혁의 패스를 결승골로 연결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대는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이성민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최우수선수상은 윤형태(호남대)가 차지했고, 수비상과 골키퍼상은 각각 장원석과 김민식(이상 호남대)에게 돌아갔다. 지도자상은 호남대 이태영 감독과 이광재 코치가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페더러 인도어 바젤 우승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다비도프 스위스 인도어 바젤오픈 결승에서 승리한 로저 페더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다. 페더러는 이날 우승으로 4년 연속 세계랭킹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대륙별 순환 개최' 폐기

FIFA 집행위 "2018년부터 여러 대륙 유치신청 받겠다"

'스포츠 티커' 보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륙별로 돌아가며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원칙을 없애버릴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취리히 FIFA 하우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FIFA 집행위원회는 2018년 월드컵부터 여러 대륙에서 유치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스포츠 사이트 '스포츠티커'가 29일(한국시간) 전했다.

이는 2014년 월드컵 유치전에 브라질 한 나라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르면 2014년 월드컵은 남미에서

열릴 차례. 처음엔 콜롬비아도 관심을 보였지만 유치 의향을 철회하고 브라질만 남았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직전 대회를 열지 않은 대륙이라면 어디에서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은 순환 원칙대로라면 북중미에서 개최권을 가져간다.

1994년 월드컵을 개최한 미국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순환 원칙을 폐기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도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영표 공격 본능 되찾나

블랙번전 풀타임 출전 2차례 위협 슈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영표(30·토트넘)의 '공격 본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이영표는 2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경기장에서 끝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에 주 포지션인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 90분 풀타임을 뛰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주로 수비에만 치중해온 이영표는 예전의 공격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전반 22분 과감한 오버래핑을 시도해 로비 킨에게 로빙 스루 패스를 띄워줬고 킨의 헤딩슛이 블랙번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의 선방에 막혔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한 장면이었다.

이어 5분 뒤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간을 엿보다 크로스를 올리는 적하다 기습 슛을 때렸다. 불이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 수문장 프리델이 가까스로 잡아냈지만 골라인을 넘어갈 뻔했다.

이영표는 후반 8분에도 전방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연결을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 슛을 날렸다. 불이 약하게 맞아 골키퍼 방어막에 막혔다.

잉글랜드 스포츠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영표에 대해 '공격적인 면에서 위협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날 관중석에는 성적 부진으로 결질된 마틴 울 감독의 후임으로 온 후안데 라모스가 앉아 토트넘 주전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이영표는 새 사람답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스널-맨유 선두 다툼 치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위... 주말 맞대결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무결점 선두 다툼'이 프리미어리그 팬들을 잡 못하게 하고 있다.

아스널은 2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통의 강호 리버풀과 1-1로 비겼다.

아스널은 공식 경기 12연승 행진을 마감했지만 리버풀에 선제골을 내준 뒤 10분 남겨놓고 극적인 동점골을 뽑은 터라 적지에서 승리한 것과 닮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리버풀은 전반 7분 스티븐 제라드가 프리킥 찬스에서 캐니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후반 막판 아스널의 새 제왕으로 떠오른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막지 못해 동점골을 내줬다.

8승2무(승점 26)가 된 아스널은 무패 선두로 복귀했다. 앞서 전날엔 맨유가 미들즈브러를 4-1로 대파, 정규리그 8연승을 달렸다. 맨유는 4경기 연속 4골을 터뜨리며 가공할 화력을 자랑했다. 4경기 연속 4골은 1907~1908년 시즌 이후 100년 만의 기록이다.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맨유는 8승2무1패(승점 26), 아스널과 골 득실(+15)도 같지만 다득점에서 뒤져 2위로 처졌다.

맨유는 웨인 루니가 7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완벽하게 부활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올림피아 득점왕 카를로스 테베스도 이적생으로서 적응을 마쳤다.

한편 아스널과 맨유는 선두 자리를 놓고 이번 주말(11월3일 오후 8시45분) 맞붙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일(화)

▲NFL 그린베이@덴버(09:30·SBS)

포츠)

▲부산국제남자 휠체어 테니스대회(14:00·KBSN SPORTS)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국민은행

(15: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3차전 <주니치> 니혼햄

(17:50·SBS스포츠)

▲프로농구 <전차팬드> KCC(18:50·Xports)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가은민물장어(본점) 주일동 광복촌 비스포우 민물장어, 즉석 잡곡구이, 단체산점원 대표 김계순 ☎(062)673-9696	광양참숯불구이 농성동 상복화관 구. 농촌진흥청일맛은편 숯불구이의 명가! 광양 참숯불구이전문 대표 박영희 ☎(062)367-9233	화랑체육관 학동 삼익세라믹@상가 3층 유티부, 조. 초, 고, 대, 일반부(다이아이트) ITF태권도, 합기도 회원수시모집 대표 최경순 ☎(062)234-4642	거평엔지니어링 금호동 미재우체국사거리 한신빌딩3층 일반건설(토목, 도시계획, 설계, 조경, 일반건축) 대표 최경순 ☎(062)681-2300	(주)사랑의손 상촌동 삼일고 건너편 효소절식, 체질개선, 다이어트 만나골드, 만나, 건생, 율본 대표 김현철 ☎(062)371-3326	김현철공인중개사 농성동 농성초교앞 모이상가 APT, 상가, 토지, 분양권, 경매전문 대표 김현철 ☎(062)419-8924	
중양공인중개사 곡성 옥곡면 리문리 송원서당옆 토지, 가옥, 임야 임대매매 각종 부동산신설업 상담전문 ☎(061)363-0599	당구 나라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3거리 2층 최신행 당구다이 설치원비 최선의 서비스 ☎(061)471-9876	(주)기아자동차전문학원 옥성동 시거리 현대캐피탈5층 경찰청지정명사시험장, 1종보통, 2종(수동, 자동), 장애인반 ☎(062)959-7000	까끄GO 보끄GO 농성동 세종@정문앞 컷드라이, 일반편, 코팅, 염색, 메니큐어, 불꽃 셋팅, 메이크스튜디오 최신행스타일전문 ☎(062)363-9361	셀지자동차외복원 양산동 양산저수지옆 르노로빈 기스제거, 출진복원, 경정비, 범퍼재생 부분도색, 유리코팅, 사고보험처리 ☎(062)365-7080	인송산악회 공동 예술의거리 원불교맞은편 3층 신기하의원 추모 사업회 대표 김항수 ☎(062)233-8868	호남방부동산-경매컨설팅 화정동 영주사거리 모이타워앞 법원경매, 저지목적, 광주골드지사 대표 김항수 ☎(062)383-3007	세정갈비 차령동 세정마을BYC건물2층 담양식 돼지고기, 미역, 해산물, 생선, 생선전문 대표 안찬선 ☎(062)371-9592
그린스포츠점락마사지 곡성 옥곡면 농협옆골목 성심의앞 비만관리, 체형관리, 디스크, 인연마비 관절염 '20년의 경력' ☎(017)621-3352	일신공인중개사 송정동 광안국악원 경매 컨설팅 전문 대표 김재영 ☎(062)941-6830	장보고전북한국수 장수동 임곡리길 해남초교다다익골목 장보고한국수, 전북죽, 전북한방심리계 전북죽, 전북한방 오리편 ☎(062)959-9880	어머나반점 농성동 세종@정문앞,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정통중화요리전문점, 세제세탁서비스 대표 이성운 ☎(062)362-0507	백악관 양산동 코끼리거리 SK주유소앞 생고기, 갈비살, 꽃등심, 육회, 닭양식, 불고기 연화식 200석, 단체, 단체예약형 ☎(062)575-9949	꿈엔들갤러리 공동 예술의거리 중앙초등학교앞 동양화, 금구함 (최고매임) 대표 강기섭 ☎(062)232-2743	등남부동산컨설팅 차령동 266-41번지 토지, APT, 상가 매매 및 임대전문 대표 박환주 ☎(062)371-9773	비전공인중개사사무소 차령동 상무지구 우리병원옆 2층 부동산의 모든 것, 성실상담, 책임중개 공인중개사 김유순 ☎(062)654-5302
우정오토바이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3거리 대량 호적 신청, 매매, 고쳐, 매매, 고쳐, 매매 출장수리전문 ☎(061)472-9266	피자윙클럽 송정동 일발로 광주은행옆 쿠폰사: 10매를 모으면 피자 10원 무료 음료수, 핫스, 치즈, 기구, 피자, 무료 ☎(062)945-1500	은주자동차검사장 옥성동 시거리에서 임곡방향 일방통행길 환경정밀검사, 정기검사, 전자검사, 대량 대표 정종균 ☎(062)952-2114	지구촌공인중개사 광천동 광천파출소맞은편 APT, 주택, 빌딩, 상가, 원룸, 투룸, 각종 토지, 임야 임대매매, 경매, 각종부동산신설업 상담전문 ☎(062)369-9656	가마솥햇살시골국밥 동원동 동부센트레빌@입구 윤리중학교앞 내장, 마리, 소, 대, 국밥 24,000원 대표 김동현 ☎(062)282-5654	(주)다산플러스광주지점 상촌동 호남대학교입구 로얄빌딩7층 전담, 요실금, 장애, 노인, 노인, 노인, 노인 획기적인 건강식품 판매 및 상담전문 ☎(062)527-5789	본가 나주곰탕 농성동 광주은행사거리 세성초교교간 나주곰탕 전문점 대표 강승룡 ☎(062)653-5532	삼각공인중개사 삼각동 삼각리 삼기내 토지, APT, 상가 매매 및 임대전문 대표 김미선 ☎(062)412-4585